

나는 행복 할거야 !...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면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 5,6)



목표

나와 타인 안에 있는, 폭력적인 행동을 가져오는 상황들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



어땠나요?

인사하고 맞이하는 단계에서는 각자가 살아 낸 경험들과 어려움에 관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지난 모임에 우리가 어디에 목표들을 두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임을 여는 활동

역할 놀이

참여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은 다음의 상황을 함께 비추어보고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상황 1: 우리 반 친구 막스는 똥똥하고 성격이 괴팍해서, 모두가 놀려요.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상황 2: 집에서 나는 막내 여동생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귀찮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주 내가 하는 일들을 부모님께 가서 일러요. 이런 여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상황 3: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 한명과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룹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룹의 분위기는 긴장이 감돌고, 두 편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룹에 다시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 그룹은 어떻게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을지 공동의 전략을 세우면서 의견을 모아 봅시다.

마지막 발표시간에 각 그룹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을 직접 재연하여 봅시다.

이렇게 살아보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미소로 세상을 바꾸기”라는 놀이를 시작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매년 마리아 폴리에 참여하는데,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를 쉽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미소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미사 후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길을 걷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해요. 할머니는 슬프고 피곤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는 그 분께 미소지으며 아주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 후에 그분의 얼굴도 다시 밝아지셨고, 할머니께서도 나에게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하셨는지 볼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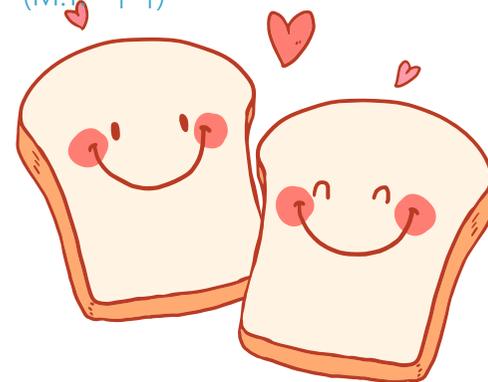
(T. K. 뉴질랜드)



우리 반의 여자 아이 하나가 너무나 미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항상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 옆자리 짝꿍으로 앉히셨어요. 나는 이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가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그 친구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아이는 티켓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아침식사를 하였고, 때문에 그 아이와 즉시로 아침식사를 함께 나누지 못하였지만 즉시로 달려가서 다음 날에 있을 아침 식사 티켓을 그녀에게 선물하였어요. 비록 나는 내가 다른 표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에요. 나는 그 친구에게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M.T. 미국)



나는 행복할꺼야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된다면...

나에게 생긴 일...



깊이 있게

부드러움으로 승리하는 것



끼아라 루빅,
로까 디 빠빠,
1975년 6월 20일
3젠 대회, 산상수훈

모든 폭력과 약탈, 테러 행위들, 젊은이들 까지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TV 를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되어요. 우리 젠들은 단호히 그와는 다른 반대의 길을 로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그 것 이에요. 잘못 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 분노에 이끌리지 않고, 당장 복수하지 않으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에요,

젠들은 어떠한 폭력이나 억압이 하느님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제자리에 두시도록 오히려 인내심으로 그것을 참고 견뎌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함은 예수님의특징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중상모략과 범죄에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참아내셨어요. 이것은 또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부드러움으로 이기며, 그리스도 신앙을 가져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하고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였어요 💡

나는 행을 할꺼야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된다면...



겸손한 온유함으로 대응하는 것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 생길 때부터, 어디서든지 싸움과 증오가 있고, 각자의 생각과 습관들, 그들이 말하고 옷을 입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적대와 대립의 장소였습니다. 결국 세상은 각자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 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만과 허영심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온유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설교 하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 21,5 참조 즈카 9,9).

“고생하여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71, 74 항.

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9). 만일 우리가 삶을 불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피곤하고 나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한계와 결점을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느끼지 않은 채 쓸데없는 불평을 하는데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을 피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는 “완전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아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약점에 대해 절대로 놀라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는 온유함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언급합니다. (갈라 5,23 참조). 가끔 우리가 형제의 나쁜 행동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갈라 6,1)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갈라 6,1) 기억시켜 줍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과 확신들을 지킬 때에도 온유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베드로 13,16 참조) 심지어 반대자들조차도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어야만 합니다.(2 티모 2,25 참조). 교회안에서, 많은 경우에 이러한 거룩한 말씀의 호소를 깨닫지 못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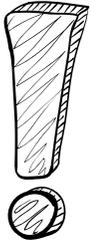
온유함은 진정한 신뢰를 하느님에게만 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난함의 다른 한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하여 ‘anawim’ 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무 온유하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고 바보같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텐데” 하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둡시다. 언제나 온유함을 유지하고, 우리 큰 소망을 이루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들을 넘어서 주님을 희망하고, 주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시편 37,9.11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십니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낮은 이,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이사야 66,2)

겸손한 온유함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한번 시도해볼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끼아라는 따르고 닮을 수 있는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1.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매번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 하기.
2. 미움을 미움으로 응답하고 싶은 바람을 인내심으로 참아내는 것. 반대로 악으로 받은 것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
3.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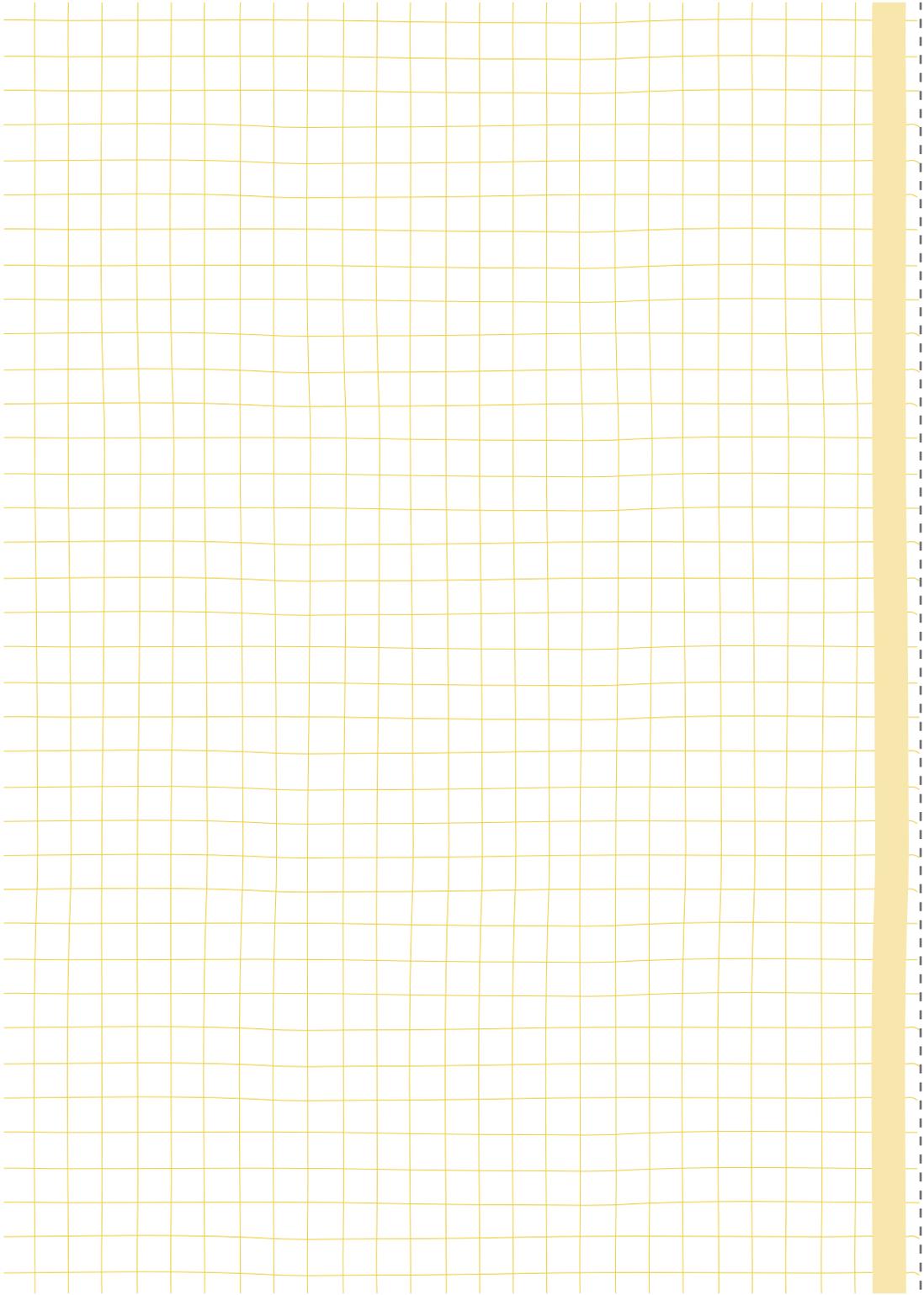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들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다음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모해봅시다: 어떠한 상황에서 악을 선으로 응답할 수 있었는지?

대개 신경질적이 되는 상황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화를 바로 내지 않고 이것을 해낼 수 있었는지?



보조자 공간



모임후 평가하기

- 어떤 분위기 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열린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의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온유함을 지니는 것이 아주 어려운, 특별한 환경에 대해 다룰 수 있었나요? 주제에 대해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모임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